

권 속 인

Harumi Befu(ed.), *Cultural Nationalism in East Asia: Representation and Ident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3. 196p.

이 책은 Stanford 대학에 30여년간 재직하다 올봄에 퇴임하는 일본계 미국인인 Harumi Befu 교수가 동대학의 인문학연구소에 상근하던 1988-1989년 사이에 주관한 일련의 교수세미나를 기초로 엮은 책이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1990년 “Cultural Nationalism in East Asia”라는 제목으로 동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이다.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만들기’를 다각도에서 조망하고 있는 각론은 중국에 관한 논문이 세편, 일본에 관한 것이 두편, 한국에 관한 것이 한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는 앞의 논문들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첨가되어 있다.

18세기말 유럽에서 발흥한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움직임은 비록 그 이후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는 달랐지만 줄곧 ‘우리’와 함께 있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거대 이념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재등장, 재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 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제목이 분명히 시사하듯이 하나의 민족이 ‘민족-국가(nation-state)’ 형성으로 대표되는, 고유의 정치적 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과는 내용적으로 어느정도 구분되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 Befu 자신은 “일단 민족의 주권이 확립된 후에 그 민족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구체화시키고, 표현해내는 일련의 움직임과 노력들”을 문화민족주의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문화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점 말고도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몇가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로는 본질주의(essentialism)에 대한 거부이다. 즉, 민족주의란 한 민족에 원래부터 주어진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고 발명되어지는 하나의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이제 학계에서 “(재)창조된 전통”이니 “상상의 공동체”니 하는 개념들은 민족의 정체성과 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어찌면 하나의 상식으로 정착한 듯한 느낌인데 이 책의 논문들도 이러한 측면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둘째로는 어떤 민족주의도 단 하나의 대서사에 의해서 통합되어 있거나 완결된 완

성품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고 이들 간의 힘겨루기가 항존하는 역동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한시대에 헤게모니를 가진 민족주의의 서사가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항적이거나 대안적인 다른 서사가 병존 혹은 잠재함을 말하고, 민족적 서사를 쓰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기억되어지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 이면에는 망각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행한다는 점이다. 이 책의 글들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 민족의 민족주의가 어떤 단일한 것이라기 보다는 Befu가 말하는 ‘다성적(polyphonic)’ 속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셋째로는 민족주의에 있어 ‘문화 정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왜 하나의 민족에 대해서 상이한 아이덴티티가 발명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Anagnost가 말하는 “누구의 민족주의인가?” 즉,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고자 특정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화적 정의 자체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 현실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형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유포시키는데 구조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민족주의가 다른 대안적 민족주의에 의해 도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도전은 종종 ‘문화’라는 자원의 동원을 둘러싸고 활발히 전개된다. 이상의 측면들이 이 책의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며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라고 여겨진다.

구체적인 각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uara는 2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있었던 두 가지 상호 경합적인 서사들 사이의 갈등, 즉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연방주의자들(federalist)의 비전’과 ‘중앙집권론자들(centralist)의 비전’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연방론자들은 각 지방의 아이덴티티를 대규모 연방제 민족-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자하였으며 이러한 체제를 지지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주장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주장과 시도는 중앙에 의해 지배되는 민족-국가를 지지하는 문화적/정치적 주장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망각되어지기를 요구받게 된다. 여기서 Duara는 어떻게 이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전례들과 문화적 언어를 동원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서구의 헌정모델과 민족-국가 모델에 연결시켜 논의를 떠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분석은 지배적 서사가 어떻게 당시의 혼란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집권제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조망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즉 이들은 과거 통일왕조국가에 대한 강력한 기억을 동원하고, 연방주의자들을 전통적인 주변부의 ‘반역자들’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이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가고 있다고 몰아부칠 수 있었다. 초기 중국 민족주의에 있었던 상이한

목소리들간의 갈등과 경합에 대한 Duara의 이러한 분석은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본질론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의 역사적 서사가 갖는 구성되어지는 성격을 선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Duara의 논문이 대안적 담론들 사이의 경쟁과 경합을 다룬 것이라면 Waldron은 문화 민족주의에 있어서 또다른 쟁점, 즉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오늘날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리장성이라는 하나의 거대 상징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상징이 갖는 복잡성, 유연성,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예시해 보인다. Waldron은 만리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서구가 중국과 상호작용을 빈번히 하게 되면서부터 장성을 중국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기고자 한 서구의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장성은 엇갈리는 해석이 부여되어온 대상이었다. 초기의 민족주의자들은 전반적으로 장성을 중국문명의 위대성과 동일시하는 서구의 관념에 동조하는 편이었으나 이는 만리장성을 왕조에 의한 압제의 상징으로 여기는 민간의 많은 민담들과 대치되는 것이다. 비록 이렇게 부정과 탄압의 상징으로 만리장성을 보는 생각들은 중국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상징을 세우고자 한 초기 민족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해 잠재해 버릴 수 밖에 없었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공산 혁명정부 초기에는 장성의 상징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거의 부재했었던 것에 비해 문화혁명으로 인한 중국 전통에 대한 무작위적 파괴를 겪은 직후의 중국정부는 장성을 중국의 단합의 상징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성이 하나의 이용 가능한 상징인 반면 이것이 갖는 의미나 이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계속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는 그것이 사용되는 정치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Fujitani의 논문은 19세기말 일본의 메이지의 권력 엘리트들에 의한 천황제 의식과 상징의 구축작업을 분석하면서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찰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매우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불변의 연속성(continuity)’이란 은유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메이지 초기인 19세기말은 일본에서 민족-국가라는 ‘문화’가 생기는데 있어서 하나의 결정적인 ‘균열의 순간(moment of rupture)’인데 민족-국가의 중심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는 이 순간에 집중적으로 발명되어진 것이다.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은 기본적으로 탈중심화된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의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던 사회였다. 나아가 천황을 민족적 상징이거나 초월적 구심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 않던 상태였다. 여기서 메이지 정치가들은 이런 탈중심화된 도쿠가와 사회와 명확한 분기를 짓고, 본래 지방화되고 특수화되었던 전통들을 하나의 강력한 중심을 통해 재배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동원된 자원의 하나가 천황제 및 이에 관련된 의식과 상징들이었다. 메이지 민족주의 창안자들은 신화나 민간신앙, 전래의 신도의식 등으로 부터 물리적, 지적 재료를 얻어 여기에다 유럽의 국가의례를 모방하여 정교한 국가의례를 만들에 내었다. 동시에 각종의 기념관, 기념물, 박물관 등의 공공 시설을 건립하여 이것들이 새로이 구축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기억시키는 물리적 중심점들(mnemonic sites)'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치 문화적 상징 및 국가의례가 대중 교육, 징집, 대중조직체 등과 결부되어 민족-국가와의 강한 동일시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약컨데 일본의 근대적 국가 의례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치는 특정의 역사적 시점에서 일본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 Fujitani의 결론이다.

Fujitani가 정치가들에 의한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민족주의 만들기'를 다루었다면 Befu는 훨씬 느슨한 형태로 진행되는 민족주의적 담론의 한 형태, 그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일본 민족주의의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저변"으로서 '일본인론'을 조망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인론에서 다루어져 온 주제들은 생태, 세계경제, 심리, 사회구조, 언어, 정신세계등 일본문화의 거의 전 영역에 걸치는 것이었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두가지로 추려지는데 하나는 동질성과 순수성에 대한 가정이다. 즉 일본(문화)은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생활양식상 동질성으로 특징지워진다는 것으로 지방에 따른 변이라든가 소수민족의 존재, 계층과 성별에 의한 변이들은 일본문화와 일본인들이 보이는 근본적인 동질성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수가 적거나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 전제는 일본의 땅, 민족(인종), 문화, 언어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하면 일본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일본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또한 일본인의 '피'를 나누어 받고 항상 일본 열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종의 유전학적 결정론으로 예컨데 일본인의 피를 갖지 않은 어떤 외국인도 결코 일본어를 자기언어화하지 못할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일본인론의 이러한 전제들은 일본인들에게 하나의 규범적인 모델(prescriptive model)로 작용하며 여러 기제들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책과 연결이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고 Befu는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이렇게 지극히 자민족중심적인 속성을 갖는 일본인론은 하나의 세속종교화 하면서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과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일종의 '수동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 자국내의 여러종류의 소수민족의 정치적 문화적 권리요구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belmann은 한국(남한)의 민족주의에 있어서 '민중'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항적 비전에서 민중이 동원되는 것은 주로 두가

지 방식을 통해서이다. 하나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subject)로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을 진정한 민족적 문화의 표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민중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배적인 민족서사에 가려져 온 상이한 민족적 계보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계급 압제와 외국의 압제에 대한 농민저항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민중을 근대 한국사의 진정한 주체로 위치시키고자 한다. 다른 한편 민중은 저항적 문화, 즉 ‘진정한’ 민족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민중이론가들은 예컨대 전통적인 마을에서 그러했다고 여겨지는 일과 놀이 사이의 진정한 연결관계를 한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민중 문화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한국의 저항운동에 있어서 민속문화가 갖는 역할에 큰 영향을 끼쳐서, 전통적인 농부의 복장이나, 농악, 주술적인 의례등이 민중운동에서는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종종 동원된다. 어느 경우든 민중이념은 독립운동과의 연계성에서 정통성의 근거를 찾고 자본주의적 근대화에서 미래를 찾는 자유주의적 도식에 근거한 지배적인 민족주의와 대립한다. 또한 서구의 보편주의적 이념을 ‘진정한’ 한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발흥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Abelmann은 동시에 민중이념이 민중들의 문화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찾아내고자 하는 반면에 이 이념 자체는 엘리트들의 산물이라는 아이러니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민중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와 논쟁은 한국에서 민족의 문화적 아이덴티티, 역사적 기억들, 대안적 정치 전략들을 둘러싼 긴장의 핵심들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Duara와 Waldron의 논문을 중국의 민족주의와 근대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연결시키고 있는 Anagnost의 논문과, 민족-국가에 항존하는 ‘불안’이라는 주제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는 Robinson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 두 논문은 중복되는 면도 있어 책의 전반적인 긴장감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요약하건대 이 책은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완결점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소위 ‘성공적인’ 민족주의라 하더라도 그안에 집단적 합의를 약화시켜갈 수 있는 다른 목소리가 존재할 여지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시각이 전제된다면 우리들의 관찰과 주목의 대상도 민족주의에 대한 다성적인 서사들, 상이한 갈래의 민족주의자들간의 경쟁적인 전략과 자원의 동원 방식, 대안적인 역사적 서사의 창출 등에 보다 집중되어야 함도 함축되어 있다 하겠다.

점점 가속화되는 세계화, 전지구화 과정은 이전의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경계들을 급속도로 와해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물리적 경계 약화라는 현실과 더불어 기존의 문화적 경계와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오히려 강화되기

도 하는 역설적인 상황속에서, 특히 우리와 우리의 이웃 (민족)국가들에서 진행되어 오고 진행중인 문화적 경계와 차이를 둘러싼 정치에 관한 이 책은 자료로서 읽는 재미와 최근의 한 주요 연구 주제를 선명히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다.

권숙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 아파트 6-202

Tel : 880-8513(O) 583-6387(H)